

‘간편대출’ 늪에 빠진 20대... ‘연체’에 발목 잡힐라

20대 청년들 소액 간편대출 증가 승인 소요시간 10분 이내 ‘현혹’ 대출경험자 15.2%가 연체 경험

#이달 초 대학생 정영철(26)씨는 졸업여행을 가기 위해 간편대출을 통해 1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정 씨는 인생 첫 대출을 결심하기까지 일주일도 고민했지만 그가 스마트폰으로 100만원을 대출을 받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정 씨는 “이렇게 손쉽게 대출이 되니 내 돈처럼 쓰게된다. 취업준비 전 여행인 만큼 여행기간을 늘리기 위해 100만원을 추가대출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3無(무담보·무서류·무방문) 시스템’이 대출시장에 정착한 지 1년. 몇 번의 스마트폰 터치로 대출을 받는 모습은 금융거래의 단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액 간편대출을 통해 급전을 당기는 20대가 늘면서 청년들이 ‘연체의 늪’에 빠지기 쉽상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간편대출의 ‘편리함’, ‘신속함’에 대출을 실행한 20대 중 상

당수가 신파일러(Thin-Filer·금융거래이력이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로, 신용관리와 금융의 이해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1년차에 접어든 비상금대출 등 간편대출 상품이 대출잔액을 큰 폭을 늘리고 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간편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은행권 전반의 간편대출 시장이 발을 넓히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상품은 ‘19세 이상’, ‘1~8등급 포괄’, ‘대출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소요시간 60초’를 내걸어 간편대출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카카오뱅크의 여신(대출)잔액은 7조원이다. 이중 비상금대출 상품의 대출 잔액이 4.0%를 차지한다. 약 2800억원 규모로 분석된다. 비상금대출의 최대 대출금액이 300만원인 것으로 감안해 분석할 시, 지난 1년간 최소 9만3000명이 넘는 고객이 대출을 실행한 셈이다.

이처럼 소액 간편대출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전연령층 중 20대의 움직임이 가

장 독보적이다. 그들은 낮은 대출문턱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간편대출 상품의 특징상 안정된 소득이 없는 무직자와 학생들도 쉽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지난 달 여신(대출) 잔액은 1조1500억원 상당이다. 대출을 실행한 고객수는 78만명에 달한다. 이중 20대는 전 연령층중 30대(36%) 다음으로 많은 비중인 28%로, 21만8400명에 달한다.

문제는 20대 중 청년 신파일러(Thin-Filer)의 대출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신용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지난 5월 한 달간 우리나라 대학생 38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신용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대학생은 78%에 달했지만, 자신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대학생은 19%에 불과했다.

청년의 연체경험률도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청년 대출경험자 중 15.2%가 연체를 경험했으며, 3개월 이상 중장기연체 비중도 대출경험자의 2.9%였다.

이에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300만원 상당의 소액대출은 대부분 체가 주로 취급하는 대출금액이다. 이같은 소액을 받는 타겟층도 위험부담이 높은 차주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

터넷은행을 비롯한 1금융권은 소액대출을 남발해 저변을 넓히기 보단 가계여건이 어려운 차주에게 위험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차원에서 속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1@metroseoul.co.kr



BNK경남은행 “잠자는 신탁 깨우고 찾아가세요”

BNK경남은행은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잠자는 신탁(휴면 신탁 계좌)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연금형 신탁과 일반 신탁이다.

연금형 신탁은 적립 만기일을 경과한 잔액 120만원 미만 계좌, 미지급 연금 보유 계좌, 연금 수령 요건을 만족한 계좌(5년 이상 불입·만 55세 이상) 등이 포함된다.

일반 신탁은 잔액과 관계 없이 5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과 관계 없이 적립 만기가 경과 계좌 등이다. 잠자는 신탁은 BNK경남은행 홈페이지 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된 잠자는 신탁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을 방

문하면 해지 가능하다.

통장과 거래 인감을 지참하면 더욱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통장을 미지참한 경우 통장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 1년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고가 50만원 미만인 계좌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하다.

신탁사업단 김기진 단장은 “고객의 자산인 휴면 신탁 계좌를 찾아주기 위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계좌 고객에게는 등록된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10만원 이상 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우선 안내를 하는 등 지난월부터 잠자는 신탁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잠자는 신탁 찾아주기 운동 기간이 20일 남짓 남은 만큼 휴면 신탁 계좌를 인지한 경우 잊지 말고 반드시 잠자는 신탁을 깨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비씨카드 ‘#마이태그’ 하면 가맹점 자동추천

비씨카드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가맹점 혜택을 추천하는 플랫폼인 ‘#마이태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가맹점이 자체 할인 혜택을 ‘#마이태그’에 등록하면, 비씨카드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3800만 고객 중 해당 가맹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고객을 추출해 해당 혜택을 노출시킨다.

고객은 먼저 비씨카드 모바일 앱 첫 화면에서 소비 성향에 맞는 가맹점 혜택을 추천 받게 된다. 추천 받은 가맹점 혜택을 ‘태그’한 후 해당 가맹점에서 비씨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은 9월 한 달 동안 ‘#마이태그’를 통해 발생한 모든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가맹점은 오는 8월 20일까지 비씨카드 가맹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세·중소 가맹점은 이벤트 신청 시 #



마이태그’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할 구매 금액대별 할인 혜택을 ▲10% 캐시백(1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3000원) ▲7% 캐시백(3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5000원) ▲5% 캐시백(5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원) ▲3000원 캐시백(4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캐시백(2만원 이상 구매 시)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부장은 “가맹점은 ‘#마이태그’를 통해 비씨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가맹점에 비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영·중·소가맹점도 효과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외국인 채권보유 112兆... 사상최고 ‘경신’

7월, 지난달 比 1.5兆 늘어 최고 경신 원화 약세에도 ‘안전자산’ 거래 지속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가 한 달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7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7월 장외 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112조 435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5000억원 늘었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6월 말의 110조 5620억원을 뛰어넘은 것이다.

외국인은 지난달 국제채 2조 2000억원, 통안채 1조 4000억원 등 총 3조 7000억원을 순매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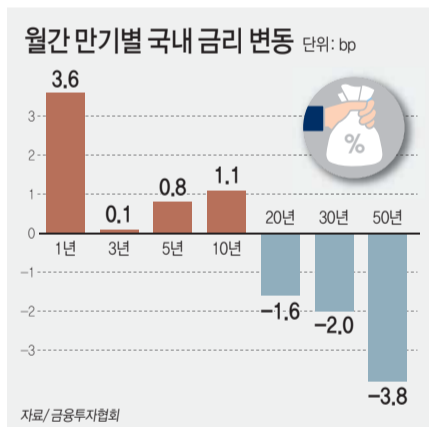
다만 한미금리 역전 폭 확대로 순매수 규모는 전월(7조 8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금투협 관계자는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무역분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외환스왑포인트(선물환율-현물환율) 마이너스로 외국인 재정부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채권발행 규모는 55조 7000억원

(2018년 7월 말 국고채 금리) (단위: %)

국고채 금리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금리	1.880	2.123	2.360	2.567	2.545	2.532	2.461



으로 전월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국제발행은 늘었으나 금융채, 회사채, 특수채 발행이 줄었다.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총 23건, 1조 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량기업의 금리 인상 전 발행 수요가 감소했다.

수요예측 전체 참여금액은 5조 8706억

원이고, 참여율(수요예측참여금액/수요예측금액)은 337.4%로 작년 7월보다 23.6%포인트(p) 증가했다.

등급별 참여율은 AA등급 이상 317.5%, A등급 415.8%, BBB등급 이하 301.5% 등이었다.

지난달 장외채권 거래량은 영업일수 증가와 금리 등락에 따른 거래 증가로 전월보다 22조원 증가한 437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일평균 거래량은 2조원 감소한 19조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 종류별 거래량은 금융채, 통안증권은 각각 37조 1000억원, 11조 3000억원 늘고 국제채는 36조 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국내 채권 금리는 국내 경제지표 부진, 미중 무역분쟁 우려 등으로 소폭 등락하다가 단기물은 상승하고 장기물은 하락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예금보험공사 지방소재 대학에 산학협력 지원

예금보험공사가 대학생 등의 금융산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KDIC-학계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소재 대학을 위주로 참여자를 모집해 지방인재 육성을 하겠다고 7일 밝혔다.

‘KDIC-학계 협력 프로그램’은 지난 11년부터 시작해 7년째 지속하고 있는 예보의 산학협력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예보직원의 대학교 방문 특강’과 ‘학생의 금융 현장실습’ 구성돼 있다.

접수는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1대1’ 상담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햇살론이나 바퀴드림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는 ‘1대1 금융생활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사는 진흥원 직원 또는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등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진흥원 금융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상담 주제는 가계재무, 저축·소비, 부채관리,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서민금융지원제도 등이다.

/나유리 기자



예금보험공사 전경